

제14장 문필 활동(2)

II. 『청년(靑年)』



청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명석 선교사는 『청년』이라는 잡지에 11가지 주제로 14회 게재하였다.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 215~276.] 이 잡지는 1921년 3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教靑年會, YMCA)에서 월간(月刊) 종합잡지(綜合雜誌)로 창간한 YMCA의 기관지이다. 그래서 창간 당시 제호(題號)를 『청년회보』라고 하였다. 창간 목적은

청년들의 정신계몽(精神啓蒙)에 두었다. 그러나 1940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사회주의나 기독교 사회운동, 일제의 군국주의(軍國主義) 확장과 심각한 경제문제와 농촌 문제 등에 대한 계몽적 활동과 일제 말기의 어려움 등에 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이 잡지는 한국 근대사연구에 귀중한 자료(資料)로 활용되고 있다.

1. 사회주의(socialism) 사상의 유입(流入)으로 교회가 혼란(混亂)스러울 때 조선교회 청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 사상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1)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의 經濟思想(경제사상)」(姜明錫)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1927.8, 15~22.).

(2) 「空想的(공상적) 經濟思想論(경제사상론)」(姜明錫)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3회 연재하였다. 서론(緒論), ① 생시몽[Saint Simon, 1760.~1825.]의 사회관(社會觀)과 신사회(新社會)(1927.9, 35~40.). ②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의 노동학교(勞動學校)와 공산촌(共產村)(1927.10, 18~25.). ③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의 사회관(社會觀)과 이상향(理想鄉), 결론(結論)(1927.11, 28~33.).

(3) 「貧窮(빈궁)과 寄生虫(기생충)」(姜明錫)이라는 주

제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1928.3, 42~48.).

(4) 「칼 막스[Karl H. Marx, 칼 마르크스, 1818.~1883.]의 經濟思想(경제사상)」(姜明錫)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회 연재하였다. ① 서론(緒論),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 계급투쟁설(階級鬭爭說)(1928.4, 28~32.). ② 노동가치설(勞動價值說), 잉여가치설(剩餘價值說), 결론(1928.5, 42~46.).

(5) 「都會(도회)와 農村(농촌)- 二重掠奪(이중약탈)을 당하는 農村(농촌)」(姜明錫)이라는 글을 제1회 실었다. 도회에서 농촌에, 도회 사람과 농촌 사람, 도회 발전과 농촌 폐허(廢墟)(1928.9, 29~32.).

2. 환원 사상(교회관, 성서관, 교회일치, 전도자관)이 담긴 논문을 게재하였다.

(1) 「歷史上(역사상)으로 본 基督教會(기독교회)의 正體(정체)」(姜文錫)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1937.11, 9~10.).

(2) 「가장 좋은 메시이지」(姜文錫)라는 주제의 글을 제1회 실었다(1938.2, 8~9.).

(3) 「米國 牧師들의 信仰觀(미국 목사들의 신앙관)」(姜文錫)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1938.6, 6~9.).

(4) 「假(가, 가짜, 거짓) 先知者(선지자)」(姜文錫)라는 주제의 글을 제1회 실었다(1938.9, 12~13.).

(5) 「國際宣敎大會(국제선교대회)를 앞두고」(姜文錫) 라는 제목의 글을 제1회 실었다(1938.10, 11~12.).

(6) 「基督軍(기독교군, 그리스도군사)」(姜文錫) 이라는 주제의 글을 제1회 실었다(1939.7, 10~11.).

Ⅲ. 『신학세계(神學世界)』



신학세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강명석 선교사는 『신학세계』라는 잡지에 6가지 주제로 11회 게재하였다.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 277~330.] 이 잡지는 목사 후보생(候補生)과 평신도(平信徒)

들을 신학적으로 훈련 시키기 위하여 1900년 12월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 신학 잡지(雜誌)인 『신학월보(神學月報)』를 흡수(吸收)하여 1916년 2월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 현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술지(學術誌)로 창간하였다. 계간(季刊)으로 발행되어 시대적 계몽과 신학연구를 폭넓게 다룬 신학 잡지로 역할을 하던 중 감리교신학교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됨에 따라 1940년 8월 폐간되었다. 그리고 1952년 10월 『신학(神學)과 세계(世界)』로 개칭하여 속간(續刊)하였는데, 현재도 발행되고 있다.

1. 신약학 논문을 게재하였다. [『강명석 選集』, 없음]

(1) 「共觀福音問題(공관복음문제)」(姜明錫) 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1928.5.).

(2) 「第四福音問題(제4복음문제)」(姜明錫) 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 서론, 제4 복음과 공관복음과의 차이(差異), 제4 복음과 공관복음과의 조화(調和), 결론(1928.7, 18~22.).

2. 교회사(church history) 논문을 게재하였다.

(1) 초대교회 박해사(迫害史)인 「歷史(역사) 及(급, 및) 傳記(전기): 初期基督敎會(초기기독교회) 迫害(박해)에 대한 歷史的(역사적) 考察(고찰)」(姜明錫)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1회 실었다. 서론,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37.~68] 황제와 기독교도(基督教徒)박해, 유대(Judaea) 교도와 기독교도박해, 이교도(異敎徒)와 기독교도박해, 기독교도들의 신앙생활과 박해, 결론(1925.8, 36~45.).

(2) 러시아교회(러시아정교회) 박해사인 「露西亞(로시아, 러시아)의 革命(혁명)과 宗教撲滅 運動(종교박멸 운동)의 由來(유래)」(姜明錫) 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회 연재하였다. ① 서론, 러시아혁명(Russian revolution)의 유래(由來)- 러시아(Russia)의 기원, 로마노프왕조(Romanov dynasty, 1613.~1918.)의 기원, 로마노프왕조의 계도(系圖), 로마노프가(House of Romanov) 전복(顛覆)의 전말(顛末), 소비에트 정부(Soviet government)의 기원과 그 정책, 소비에트 정부의 현상(1925.10, 55~63.). ② 러시아 종교박멸 운동의 유래- 러시아의 종교, 반종교파(反宗教派)와 그 세력(其 勢力), 종교박멸 운동의 전말(顛末), 결론(1925.12, 63~70.).

3. 기독교사회주의 입장에서 작성된 사회복지(社會福祉)와 사회개혁에 관한 논문인 「歐米(구미)의 社會事業(사회사업)과 朝鮮(조선)의 社會事業(사회사업)」(姜明錫)이라는 주제로 게재하였다.

(1) 雜著(잡저): =교화사업(敎化事業)의 일면(一面)= ①

교화사업의 의의. ② 교화사업의 종류- 교풍(矯風) 사업론: 금주(禁酒) 사업→ 금주 사업이 일어난 원인과 일으킬 이유, 미국에서 일어난 금주운동(禁酒運動)의 전말(1926.2, 66~69.).

(2) 節制部(절제부): 교풍 사업론: 여자 구제(救濟)사업→ 매음부(賣淫婦) 및 불량(不良)여자와 사회, 구미의 여자구제사업, 조선의 여자 구제 사업(1926.12, 103~106.).

4. 영성생활(靈性生活)과 영성훈련(the discipline of the spirit)의 지침서(指針書)인 『史叢(사총): 聖(성) 푸랜씨스코(프란치스코, Franciscus, 1182.~1226.)의 聖生活(성생활)』(姜明錫)이라는 논문을 제4회 게재하였다.

(1) 40일간 단식기도(斷食祈禱), 로마니아(Romania, 루마니아)와 이모라(Imola, 이몰라)에 전도함, 새들에게 설교(說敎)함(1933.1, 48~51.).

(2) 동물(動物)에 동정(同情), 겸비(謙卑)의 생활, 기도의 생활, 프란시스코의 기도, 악마(惡魔)의 존재(存在)를 중요시 안 함, 이적(異蹟)과 사랑(1933.3, 52~55.).

(3) 설(雪, 눈) 인형(人形), 자비광(慈悲光), 학문(學問)과 충성(忠誠)(1933.5, 52~55.).

(4) 성흔(聖痕), 자연 예찬(禮讚), 천사(天使)의 연주(演奏), 사(死, 죽음)의 찬미(讚美)(1933.7, 47~50.).

IV. 『진생(眞生)』



진생(한국잡지백년1, 최덕교- 현암사, 네이머지식백과)

강명석 선교사는 『진생』이라는 잡지에 4가지 주제로 8회 기고하였다. [『환원 선구자 강명석 選集』, 331~359.] 이 잡지는 청년운동의 상호연락과 청년들의 질적 향상, 신앙훈련을 목적으로 1925년 9월 1일(화) 창간되어 1930년 12월 중단된 기독교청년면려회(基督教青年勉勵會) 조선연합회(朝鮮聯合會) 기관지이다. 월간으로 발행되었는데 교회와 관련된 기사, 생활인을 위한 기사, 그리고 논설(論說) 등이 자주 실렸다. 문예란(文藝

欄)에는 회원들의 문학작품을 기타란에는 중앙과 각 지역 “기독교청년면려회 소식”을 실었다.

1. 기독교사회주의 입장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예술과 종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염원이 담긴 글인 「나의憧憬(동경)하는 藝術(예술)과 宗教世界(종교세계)」(姜明錫) 라는 논문을 제2회 연재하였다.

(1) 1925.12, 18~21.

(2) 1926.1, 22~23.

2. 기독교사회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기독교 노동조합 운동에 관한 논문인 「歐洲(구주) 기독교 勞動組合運動(노동조합운동)의 管見(관견)」(姜明錫)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연재하였다.

(1) 노동조합운동의 기원과 그 의의, 기독교노동조합운동, 구주 기독교노동조합과 그 사업(1927.5, 12~18.).

(2) 국제 기독교노동조합 연합회(1927.6, 10~13.).

3. 성서적 경제사상을 다룬 논문인 「聖經(성경)에 表現(표현)된 經濟思想(경제사상)」(姜明錫) 이라는 제목으로 제3회 연재하였다.

(1) =舊約(구약)에 表現(표현)된 經濟思想(경제사상)= 서론(1927.7, 12~18.) [『姜명석 選集』, 없음]

(2) 고리대금(高利貸金) 금지법(禁止法), 개인주의(個人主義)의 발달(發達)과 예언자(豫言者)의 교훈(1927.9, 18~20.).

(3) =신약성서에 표현된 경제사상= 복음(福音)에 표현된 경제사상, 역사편(歷史篇, 역사서)과 서적(書籍, 서신서) 중에 나타난 경제사상, 결론(1927.10, 13~17.).

4. 기독교 청년운동과 민중 교육에 관한 논문인 「勉勵(면려) 青年會(청년회)와 民衆(민중) 敎育(교육)」(姜明錫)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실었다.

(1) 민중 교육의 필요, 구미 각국의 민중 교육 개관(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우리나라의 민중 교육, 민중 교육의 기관(1929.5, 17~29.).

V. 『신생명(新生命)』(월간잡지)

강명석 선교사는 『신생명(新生命)』이라는 잡지에 1가지 주제로 제2회 게재하였다. [『강명석 選集』, 없음] 이 잡지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독점됐던 기독교 문서 운동의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순수 민간인이 출자한 조선기독교 창문사(彰文社)에서 1923년 7월 16일(월) 창간한 기독교 월간잡지로 1925년 10월 폐간되었다. 잡지의 성향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진보주의적(進步主義的) 성향이 강했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당시의 보수적(保守的) 신앙 노선과 외세 의존 세력에게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잡지로 강명석은 이 잡지의 주요 필진이었다. 이 잡지에 강명석은 ‘극단적 신비주의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神秘主義(신비주의)와 基督教(기독교)』’라는 주제로 제2회 연재하였다.

- (1) 서론(신비주의는 무엇인가?)(1925.2, 33~36.).
- (2) 공관복음의 신비주의, 마울의 신비주의, 요한복음의 신비주의(1925.4, 30~35.).



신생명(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I. 『신생(新生)』(월간잡지)



신생(한국잡지백년1, 최덕교- 현암사, 네이버지식백과)

강명석 선교사는 『신생(新生)』이라는 잡지에 1가지 주제로 1회 게재하였다. [『강명석 選集』, 없음] 이 잡지는 1928년 10월 1일(월) 창간되었던 기독교계 월간종합 교양 잡지로 1934년 1월 1일(월) 폐간되었다. 민족의식이 강한 잡지로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교육, 그리고 역사 등 각 분야에 논설, 논문, 수필, 문예, 그리고 창작 등으로 무게 있는 글을 실어 많은 지식인의 공감을 샀다. 이 잡지에 강명석은 ‘예술은 우리의 인간성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의 무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논문'인 「藝術世界(예술세계)를 찾아서」(姜明錫) 라는 제목으로 제1회 게재하였다(1928.11, 14~15.).

VII. 일본의 길잡이(『道しるべ』(잡지)

「큰 문제의 한가지: 구원을 얻기 위한 침례(大きい問題の一つ: 救いを得るためのバプテスマ)」라는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姜文錫, 「大きい問題の一つ: 救いを得るためのバプテスマ」, 『道しるべ』, 1938.11, 8~10.]

